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첫 지정

남원시가 4월부터 공공 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해 심야시간대인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월 1~2회를 제외하고는 토·일·공휴일에 상관이 없이 365일 심야시간대 운영되는 약국으로, 남원시는 '서남원누리약국(남원시 시청로 59)'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남원시에는 야간운영 약국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증상을 스스로 판단해 편의점에 구비된 안전상비약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공공심야약국이 선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에도 안전하게 의약품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투약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

전북대병원 신경과 오선영 교수, 중증근무력증 진단법 개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신경과 오선영 교수가 비디오 안구운동검사(video-oculography, VOG)를 이용하여 근육 피로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안전하게 중증근무력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국내 특허 출원과 더불어 세계적인 저널인 국제 학술지 [Journal of neurology (Impact Factor =6.682)] 최신회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MG)은 복시와 안검하수를 주증상으로 일중변동성의 근력약화와 피로를 특징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근접합부질환으로 자가항체에 의한 자가면역질환이다. 복시와 안검하수를 주증상으로 하는 안구형 중증근무력증으로 시작하여 점차 얼굴과 목, 팔 다리, 심하면 호흡근까지 침범하는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초기에는 눈꺼풀 등 눈근육에만 국한되지만(약 15%), 결국에는 전신으로 진행하며 다른 부위의 근육까지도 침범하기 때문에 안구형 중증근무력증 초기 진단은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으로의 전환을 줄이고 질병의 악화, 입원 및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중증근무력증의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들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선영 교수는 영상안구운동검사(VOG)를 이용하여 분석이 쉽고 정확하게 비침습적으로 중증근무력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방법으로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질병 악화와 입원 및 장애를 방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중견후속연구사업으로 수행됐다. /김영태기자



전북경찰청, 누리캡스 위촉식·간담회 개최

전북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Day)을 맞아 전라북도경찰청 누리캡스 위촉식과 함께 민경·협력 치안 강화 위한 간담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누리캡스는 네티즌을 표현한 순우리말인 '누리꾼'의 누리(Nuri)와 경찰을 뜻하는 영어 캡스(Cops)를 합성한 단어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이다. 이날 누리캡스 위촉식에는 경찰, 누리캡스 회원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 회원 24명을 위촉했다. 이곳에서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와 사이버범죄 예방 아이디어 제공 등 경찰 협력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위한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Day)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www.42day.kr) 및 SNS 등 소문내기(Viral)이벤트 진행 등 4.2Day 기념 홍보활동도 가졌다. 권원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누리캡스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및 검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풍년을 기원합니다’... 무주·장수시 영농발대식 가져

무주군 농민회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농민회 주관 풍년기원제 및 영농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농업인 등 4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풍년기원제, 농작업용 방석 나눔 행사에 함께 했다. 무주군농민회 이장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무주농업의 근간이자 발전을 도모해 나갈 동력"이라며 "혹독했던 겨울이 가면 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상기하며 끝까지 희망 버리지 말고 각자의 터전에서 매진해보자"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 여파와 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농업전망은 울해도 그리 밝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믿는다"라며 "농업 전문가로 쌓인 여러분의 경험과 군 정책을 토대로 배우고 실천해 무주농업을 발전시켜 달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해 농업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으로, 농업분야에 총 960여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경영실증장을 조성하고 △음·면 1특화 1소득 작목 육성, △친환경생산 기반 및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농업인 교육과 △공공영계절근로, △농업인 월급제 확대·지원 등 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서 기자

장수군 농민회



남원소방서, 소방 흔적 담은 유물 기증운동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024년 개관하는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발굴을 위해 수집 및 기증운동을 실시한다.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 운동은 근대 개항기부터 1980년대까지 소방관련 역사자료 및 유물을 찾아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상 유물은 소방차량에서 소방관련 문헌, 의복 사진, 작은 배지까지 크기·종류에 상관없이, 기증자는 기증증서 발급·주요 행사 초청·명예의 전당을 통한 기증자 명단 수록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참여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http://firemuseum.or.kr)에서 "소방유물 기증운동" 클릭후 "소방유물기증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소재실 서장은 시민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방유물 기증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달 31일 남원 우성아파트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6.8%이나, 사상자는 15.4%를 차지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큰 것이 특징이며 거의 모든 사상자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대피방법의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방법 △정확한 119 신고 방법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론뿐만 아니라 소화기 모형을 직접 사용해보고 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현장감 있게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수협, 조합원 자녀 49명에 장학금 지급

경제난으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특히 어렵다는 어업인들은 어족자원의 고갈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이공계를 겪고 있다. 부안수협(조합장 송광복)은 지난달 28일 조합원 자녀 49명에게 부안수협 신약화에서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속에서도 학업중단 조합원 자녀를 돌려주고 어업인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송광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임직원의 의지이며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 깊은 의미의 행사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북경찰청 9지구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전북경찰청(청장 강홍수)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해빙기 고속도로 시설점검 및 공사구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9지구대는 지난달 18일부터 고속도로 순찰 중 해빙기에 따른 낙석·지반침하 및 도로상 포트홀 가드레일 등 위험요소를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에 즉시 통보하고 운전자들께 음운전 예방을 위해 알람순찰, 캠페인 등 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공사구간 증가에 따라 4월을 시작으로 5월부터 공사구간 사고가 오르다가, 10~11월 최다 발생 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들이 공사내 시설 등을 발견하면 미리 차로변경을 하고 감속해야 하며, 공사시점부터 접근하고 나서야 뒤늦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공사차량 등을 추돌하는 사고유형이 67%에 이른다. 이에 9지구대는 구간순찰 중 공사구간 발견시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개선토록 현장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공사장 마주치면 미러미리 비켜나기, 비상등 켜기' 등 슬로건을 활용 VMS(가변 전광판), 캠페인 등을 활용 운전자 대상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장계농협·농협 장수군지부, 유희공간 꽃길 조성

장계농협(조합장 객점용)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 장계면(면장 신승수)은 유희공간활용 꽃길조성을 위한 꽃심기 봉사활동으로 단정했다. 봄맞이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하천부지 유희공간에 장수군에서 후원한 봄꽃 6000주(석죽,비물라,팬지,데이지)를 산책로 주변에 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교향주부모임 회원 등 40여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꽃길조성에 힘을 보탰다. 객점용 조합장은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주민들이 화사한 꽃을 보며 산책을 즐기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자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농가주부모임,교향주부모임회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해준 농협장수군지부 정영선지부장은 "다채롭게 핀 꽃들을 보며 지역주민들이 봄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